
'24년 한·일

민간어업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24. 12



수산경제연구원

한·일민간어업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1 협의회 개요

□ (일시 / 장소) '24. 11. 12(화) / 일본 가고시마(이부스키시)

○ 출장기간 : '24. 11. 11(월) ~ 11. 14(목)

□ (참석자) 수산경제연구원 박지용 부원장, 최용완 차장

○ 총 28명(한국 14명, 일본 14명)

- (한국) 한국수산회 정영훈 회장(대표단장),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부원장, 업종별 대표(연승, 오징어채낚기, 붉은대게통발, 대게자망통발, 선망),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관계관 등 14명

- (일본) 대일본수산회 에다모토 마사아키 회장(대표단장),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업종별 대표(오징어채낚기, 붉은대게통발, 저인망, 선망), 수산청 자원관리부 국제과 관계관 등 14명

□ (주요 협의의제)

○ (의제 1) 한·일 민간어업 약정의 실시 상황에 대해

○ (의제 2) 기타 사항

□ (주요일정)

일자	주요내용
11.11(월)	인천→가고시마
11.12(화)	한국 대표단 사전회의 한·일 민간어업협의회 본회의
11.13(수)	가고시마 수산시설 시찰
11.14(목)	귀국

2 주요 협의 결과

□ (의제 1) 한·일 민간어업 약정의 실시 상황에 대해

○ (한·일 민간어업협력 상황)

양측은 어선간 해상사고가 모두 해결되었고 업종간 협의회도 원만히 개최되어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

○ (교대조업 및 어장청소 문제)

우리측은 한·일민간어업약정에 따라 관련 어업단체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입장.

일측은 민간간 오랜기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상호 납득가능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으므로 정부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입장

○ (한국 자망·통발 어구 피해)

우리측은 동해중간수역내 대게어장에서 4~5월경 일본 저인망어선 인망 작업으로 한국 자망·통발 어구가 지속 훼손·유실되고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어업인을 지도하고 조속한 시일내 관계 어업인간 대화의 장 마련을 요청.

일측은 한국측 어구 훼손·유실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이러한 피해발생 때문에라도 조속히 정부간 협상의 틀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

○ (일본 EEZ내 한국 자망·통발 어구 회수)

일측은 지난 협의에 이어 일본 EEZ내 한국 자망·통발 어구가 대량 회수되고 있으므로 관계 어선들이 위반조업하지 않도록 한국수산회가 지도해 줄 것을 재요청. 아울러 전년도 일측 문제 제기 에 대한 한국측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요청.

우리측은 우선 회수된 어구의 한국 어구 여부 및 일본 EEZ내 유입 경위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 단체(한국 자망·통발과 일본 저인망)간 협의를 통한 해결 도모가 바람직하다는 입장 전달. 아울러 전년도 회의

결과를 관련단체에 모두 통보, 관련단체에서 회원대상으로 설명하였음을 답변.

*우리측은 한국 정부의 폐어구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사항(어구보증금 제도 시행, AIS 규정 위반 처벌 강화 등)도 부연 설명

○ (한국 자망·통발 어선 조업 자제 요청)

일측은 조업질서가 확립되기 전까지 한국 자망·통발 어선의 동해중간 수역 내 교대조업 대상수역 조업 자제 요청.

우리측은 관계 어업인 생계유지 문제로 수용 어려우며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단체간 협의 필요성 강조.

○ (오징어채낚기 어업 교류)

양측은 금년 9월 한국 인천 개최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세미나』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살오징어 어획 급감 상황을 공유했으며 향후에도 민간교류 촉진 및 연구자 견해 공유 등 기후변화와 자원감소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함.

○ (붉은대게통발 어업 교류)

양측은 금년 8월 개최된 한·일붉은대게어로장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자원 감소 및 조업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인 정보 교환 및 협의를 통해 조업질서 유지 및 자원관리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함.

*우리측은 지난 8월 회의 이후 일측 협조로 양측 어구 교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

○ (선망 어업 교류)

양측은 선망 조합간 협의회 및 교류를 통해 자원관리, 유통, 가공 등 전반적 분야에 대해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을 평가, 향후에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함.

우리측은 ① 상호입어 재개를 위한 양측 조합간 노력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② 양국 선망 어선들이 특정 범위 해구에서 상호입어를 통한 자원조사도 병행할 것을 제안.

일측은 양측 조합간 교류를 통해 상호간 공통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자고 답변.

*회의 후 우리측 선망조합장의 일본 선망조합장에 대한 서한 전달

○ (연승 어업인 교류 재개)

우리측은 지난 협의에 이어 2016년 상호입어 중단 이후 단절된 양국 연승 어업인 교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일측에 재요청.

일측은 양측의 대상 어종이 상이(한 : 갈치, 일 : 복어)하여 자원관리, 유통, 소비도 다르므로 협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입장 반복.

○ (동중국해 자원관리 협력)

우리측은 동중국해가 쿠로시오 해류를 통한 자원 회유의 중요 경로 이므로 중국 범장망 어선 등의 과도한 어획을 관리하고 한·중·일 3국간 정보교환 등 지속가능한 어업의 필요성 제기.

일측은 한중일 3국이 공동 이용하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공통 자원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논의 토대가 마련되지 못했으므로 먼저 일·중 선망간 교류의 틀을 구축 후 획득된 정보를 한국측과 공유 및 연대할 필요성을 설명.

□ (의제 2) 기타 사항

○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관련)

일측은 지난 협의에 이어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폐되도록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등 협력해 줄 것을 요청.

우리측은 해당 조치는 한국 정부가 식품 안전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수산업계가 당면한 과제라는 입장 전달.

○ (EEZ 상호입어 협상 조속 재개)

우리측은 양국 어업인들의 불편 사항 해소 및 연중조업을 위해 8년째 중단된 상호입어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양국 수산회가 자국 정부에 건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특히 양국간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선망 업종간이라도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일측은 일본정부로부터 동해중간수역 교대조업 문제 등 현안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으므로 한국정부에 현안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한다는 입장 표명.

*우리측은 중간수역 조업질서나 교대조업 문제 등 어업과 관련된 사항은 당사 자간 민간 협의를 기본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 표명

○ (기후변화 대응 공동 협력) ※ 본회 발언(세부사항 별첨 참조)

우리측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양측간 자율 휴어기 확대, 금지체장·체중 준수, 민간차원의 공동 연구 및 정보교류 협력을 희망.

일측은 한국측 발언에 공감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제안이 있을 경우 한국수산회를 통해 제안해 줄 것을 요청.

○ (차기 회의) 차기회의는 2025년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장소 및 시기에 대해서는 사무국 간에 연락·조정해 나가기로 함.

[별첨1] 관련 사진



한일 민간어업협의회 본회의



한일 민간어업협의회 본회의



기념품 교환(한국수산회장, 대일본수산회장)



한일 민간어업협의회 기념촬영



수산시설(가츠오부시) 견학



수산시설(가츠오부시) 견학

[별첨2] 본회 발언 주요내용

-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관리 공동노력 절실 -

관련자료

□ 현 황

○ 해양 온난화 현상 가속

- 최근 56년간(1968~2023년) 전 지구 표층수온 0.7°C 오르는데 반해, 한국 해역 연평균 수온은 2배 이르는 약 1.44°C 상승*

* 국립수산과학원, 「2024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

- 한국 연근해 어업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20~'23년, 평균 93만톤*)와 온대·아열대 종 증가 현상 발생

* 연근해 어업생산량 : 2018년 101만톤 기록 이후, 현재까지 90만톤대 형성

□ 문제점

○ 연근해 수산자원 변화

- 한류성 어종인 살오징어 어획량 최근 10년 사이 약 86% 감소

(단위 : 톤)

연도	2000년대* 평균	2014	2021	2022	2023
생산량	201,794	163,896	60,880	36,578	23,343

※ 출처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00년대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임

- 난류성 어종인 방어류, 전갱이류, 삼치류 어획량은 증가하면서 한반도 어족 자원의 구성이 변화되고 있음

(단위 : 톤)

연도	2014	2021	2022	2023
방어류	11,158	15,046	21,270	25,372
전갱이류	24,005	49,692	37,761	38,681
삼치류	29,537	30,950	35,655	45,692

※ 출처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연근해 고수온 상태 지속으로 양식장 어류 폐사 등 피해*

* 행정안전부, 고수온 양식장 피해 '24.9월 기준 약 5,000만 마리 예상

□ 협의 방안

- 한일 양국 간 공동 노력
 - 해양 생태계는 국가 경계를 초월하여 연결되어 있는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한일 간 협력 필수
 - 한·일 양국은 자율휴어기 확대 운영, 포획금지 체장 및 기간을 준수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
 - 아울러 양국 민간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다양한 공동 연구, 정보 교류 등 협력도 기대

[참고] 韓, 수산자원 관리 노력 지속

- 한국 수협중앙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총체적 대응조직인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발족^(24.10.16), 본격적으로 운영
 - * [위원장] 수협회장 [분과대책위] 동서남·제주 4, 근해 1, 어·패·해조류 3 등 8개 위원회 [임 무] 기후변화 대응전략·개선방안, 기후변화 영향 분석, 대정부·국회 어업인 지원 활동 등
- 한국 정부는 노후어선 대체건조 지원, 해양폐기물 재활용, 바다숲 조성 등 기후위기 대응하는 정책 추진
-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관리,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등 다양한 어업관리 노력도 실시하고 있음

발언요지

- 오늘날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와 이로 인한 기후변화가 바다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최근 56년간(1968~2023) 한국의 연평균 표층 수온 상승은 약 1.44°C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표층 수온은 0.7°C 상승해, 한국 연근해 바다 수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2018년 101만톤을 기록한 이후, 100만톤 아래로 떨어져 현재까지 줄곧 90만톤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바다 생태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국민 생선으로 불리던 명태는 씨가 마르고, 오징어는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는 2000년대 연평균 20만톤 정도 잡히다가 작년에는 역대 최저인 2만 3천톤까지 줄어 ‘금(金)징어’라고 불릴 만큼 귀해졌습니다.
- 반면 난류성 어종인 방어류, 전갱이류, 삼치류는 한국 해역에서 어획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의 어장 지도가 점차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해양폐기물 재활용, 바다숲 조성, TAC 제도 확대 등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수협도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 한국과 일본은 바다를 마주하며, 해양생태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이 기후변화 시대에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협력관계를 견고히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이에 한일 양국은 고수온 등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자율휴어기를 확대하고, 어종별 포획금지 체장 및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간차원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다양한 공동 연구와 정보 교류에 관한 협력도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